

부천시민통일문화제의 경과와 향후 기조 및 방향에 대한 한 모색

부천시민연합 전 이사장 백선거

1. 지난 부천시민통일문화제 30년의 경과와 약평

1) 간략한 경과

- 1991~1992: 범민족대회 부천참가단/부천지역민주운동협의회 및 민주주의민족통일부천연합/300여명 참가/발대식 및 간단한 문화행사와 본대회 참가/석왕사
- 1993~1995: 부천시민통일한마당/부민협+부천연합+종교계등 각계인사 및 제단체, 부노협/2000여명/통일마라톤, 통일씨름대회, 유도현밴드공연등 다양한 문화행사 및 본행사(부천대900명), 중앙대회참가/레포즈공원, 부천대
- 1996~1997: 부천시민○○○/부천연합+종교계+부천Y등 시민사회단체/3만명~2만명 참가/5개지역 겨레사랑이웃사랑 마을잔치(각2천여명 참가)와 북한동포돕기 쌀모으기운동, 통일음악회와 단체별행사, 통일영화제, 평화통일연극제, 통일기행, 통일강연회, 범종교인평화통일기원행사, 도시간자매결연제안, 북한동포돕기(2억모금)/중앙공원
- 1998~2003: 평화통일민족대회등 다양한 명칭/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센터 및 종교계와 부천Y등 시민사회단체, 바르게등 보수단체, 민주평통, 민중연대, 부천시후원(1천만원~2천만원)/1만~5천명/평화통일영화제, 평화통일시민교육, 통일강연회, 통일음악회와 단체별행사, MD반대서면운동, 일본의 역사왜곡반대서명운동, 청소년통일퀴즈평화통일토론회(남남대화)/중앙공원
- 2004~2015: 부천시민통일문화제/부천시민연대회의+각계각층의 지역내 시민사회단체, 민중연대, 민주노총, 사회복지, 남북평화재단, 부천시후원(2천만원)/5천~3천/중고자전거수리 및 북한자전거보내기, 망배단합동차레 및 탈북시민한방진료, 통일걷기대회, 통일기행, 통일영화, 금강산기행, 평화통일마을잔치, 종교인평화통일기도회, 통일음악회와 단체별행사/중앙공원, 시청광장, 수목원등
- 2016~: 부천시민통일문화제/부천시민연대회의+각계각층의 지역내 시민사회단체, 민중연대, 민주노총, 사회복지, 남북평화재단, 부천시후원(2천만원+@)/3천(?)/통일걷기대회, 통일기행, 통일연극, 북한음식시연, 통일김밥, 통일음악제(경연대회)와 단체별행사/부천역

2)그간 사업에 대한 약평

- 1991년 이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역통일운동의 큰 흐름을 이어 오면서 다양한 사업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유지, 발전시켜왔음
- 이 과정에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세의 요청에 부합하는 중심사업과 조직형태를 세워오면서 내용성과 대중성, 중심과 외연, 정치적 메시지와 문화적 다양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음
- 특히 1996년 통일음악회라는 양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민간단체가 주최한 행사 사상 최대인 3만이 집결하는 대중적 참여와 북한동포돕기(2억)이란 정치적 메시지를 동시에 성사시키면서 전국적 이목을 끄는등 민족대단결운동의 대중적 지역적 토대를 강화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견지해왔음
-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6.15남북공동선언 및 부천시의 지원, 통일운동의 분화등 정세와 대중 및 주객관적인 변화에 대한 주동적인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사업이 점차 관성화되면서 평화통일운동의 내용성과 임팩트가 경향적으로 약화

되어오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였음

○또한 남북관계와 한반도정세의 변화에 걸맞는 조직과 사업에 대한 창조적인 대안을 세워내지 못하고 2004년이후 부천시와의 민관협력이 파괴되면서 시민참여를 통한 평화통일동산, 부천시민평화통일센터건립, 평화통일기금의 발적적 집행등 그동안의 지역평화통일운동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리원등 특정의 북한도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이를 통한 남북도시간 자매결연사업과 같은 전략적 사업에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함으로써 지역통일운동의 비전을 발전적으로 형성해오지 못하였음

○또한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은 물론 청소년들을 평화통일의 주체로 세워나가는 지속적인 사업들이 부재했다는 점도 돌아볼 지점이라 할 것임

2. 향후 부천시민통일문화제의 기조와 방향

1)여전히 민간통일운동의 대중화,지역화의 전략적 방향성을 견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해나가야 할 것임

○단체별 행사와 다함께 참여하는 집중점으로서의 본행사

-음악회와 음악제의 창조적 발전

○대중성(문화적 접근)과 내용성(정치적 메시지)의 고려

-시민참여행사와 사업, 평화협정운동등

○30년지역통일운동의 성과 가시화를 통한 민족대단결운동의 지역적 토대 강화

-<평화와 통일의 도시, 부천>을 향한 제반 사업(만화, 영화등 문화적 교류사업 추동)

-네이밍작업, 민관협력, 시민참여 평화통일동산 조성, 평화통일센터건립

2)동시에 정세의 요구와 대중의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조직형태와 사업내용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임

○명칭의 발전적 변화

○정세에 부합하는 대중사업의 개발

-북한개별관광의 적극추진, 남북철도잇기, 범시민적인 평화손잡기

○대중성(문화적 접근)과 내용성(정치적 메시지)의 고려

-시민과 함께 하는 미국문제의 본격적인 제기

-방위비문제, 7.27휴전협정의 평화협정화운동

3)또한 지역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전국적인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서울에서 개최되는 본행사 조직적인 참가

○상시적인 연대

-4.27, 6.15남측위 참가등

○2032남북올림픽공동개최 캠페인

4) 지역통일운동의 비전과 전략적 방향성을 견지해나가야 할 것임

○남남대화의 정례화와 공동사업

-남북도시간 교류협력사업, 공동토론, 공동행사

○남북도시간교류협력사업의 준비와 성사

-시민참여 도시선정, 각계 교류협력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사업의 개발

-교육청과 협력 민주시민교육차원의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기행 및 통일퀴즈등 사업개발, 평화통일행사의 주체적 참여보장

■ 별첨: 부천시민통일문화제 30년 약사

1980년대 중후반 국내외의 정세변화를 바탕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면서 부천지역에서도 처음으로 평화와 통일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1990년 제 1차 범민족대회(연세대)에 산발적으로 참가하면서 점화된 불씨는 1991년 석왕사에서 부천지역민주운동협의회와 부천연합을 중심으로 한 범민족대회 부천지역 참가단 발대식을 갖고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제 2차 범민족대회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참여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의 주된 이슈는 미국의 북한 핵사찰공방으로 인한 전쟁반대-평화장착과 함께 1991년 12월 13일 노태우정부하에서 이루어진 평화통일의 대장전이라고 불릴만한 역사적 문건인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을 통한 불가역적인 평화통일국면으로의 이행이었다. 나아가 수만 명이 모이는 중앙행사를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역적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민간통일운동은 3자연대와 4대정치적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 중앙행사에 대한 노태우정부의 원천봉쇄를 뚫고 투쟁하는 돌파형 운동이어서 아직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였으며, 지역보다는 전국적 차원의 활동과 쟁점에 집중하였고 재야, 노동, 청년, 문화단체의 회원들을 주된 동력으로 한 선도적인 투쟁과 사업방식에 머물렀다

그런데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동맹국보다 민족공조를 중시하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장기수 이인모노인의 복송 등 문민정부 초기의 전향적인 조치와 맞물려 평화통일운동에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문익환목사는 이러한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분단 50주년인 1995년 통일희년을 염원하면서 통일운동의 대중화와 지역화, 범민련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중적 통일운동체를 제안하였다

부천에서는 이러한 국면을 함께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1993년 처음으로 종교계 지도자들을 필두로 지역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부천시민통일한마당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날 통일문화제의 원형인 ‘부천시민통일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게 된다. 당시 단일기를 만국기 형태로 게첨하고 풍물을 앞세운 길놀이를 시작으로, 통일씨름, 통일족구대회, 통일물풍선 터뜨리기, 통일장애물넘기, 통일마라톤, 기천문시범, 자동차경품등의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과 함께 공개적인 장소인 원미구 레포츠공원 운동장에서 열린 시민참여형 행사를 개최하면서 회원들과 그 가족 및 일반 시민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중앙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자 이와 거리를 두고 부천지역 시민참여를 통해 대중적인 평화통일운동의 모델을 창조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1996년의 지역통일행사는 3만명이 참여하는 시민축제형의 대규모행사와 다양한 사업으로 마침내 그 빛을 발하였다.

70여개의 참가단체와 100여명의 자문위원-대표단, 1만원씩 기금을 내고 참여하는 1000여명의 시민-회원들을 기축으로 평화통일아카데미와 다양한 시민참여행사, 북한수해동포돕기와 평화통일음악회, 회원주도와 시민참여를 결합시켜 내용성과 대중성, 메시지와 축제, 중심과 외연등 평화와 통일운동의 본성적 요구인 양 측면을 풍부하고도 균형 어린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통해 실현하였다.

민주주의민족통일 부천연합과 종교단체, 부천YMCA등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광범위한 추진기구를 만들고 단체별 논의와 결의를 거쳐 발족식을 갖고, 평화통일강연회와 종교인행사와 통일기행 등을 통해 대중적 사업을 본격화하고 지역적 분위기를 고조시켜내면서, 지역내 5개 권역에서 각각 2000여명이 참가하는 “이웃사랑 동포사랑 마을잔치”라는 중간항을 거쳐 2만에서 3만여명이 참여하는 8.15평화통일음악회

로 집결시켜내고, 북한동포돕기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북한도시와의 자매결연이란 비전을 대중적으로 제기해 나가는 과정은 하나의 전범이 되었다.

이러한 동력을 바탕으로 당시 부천시장을 비롯한 민과 관, 진보와 보수, NGO와 기업등 각계각층이 범시민적으로 참여하여 2억원의 성금을 모아낸 1997년의 북한동포돕기운동은 부천시사에 기록될만한 쾌거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범시민적인 평화통일 시민축제에 대한 공신력은 1998년 처음으로 평화통일행사에 대한 부천시의 지원으로 이어졌으며 2000년부터 부천시의 경상예산지원으로 제도화(통일문화제지원)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렇듯이 통일운동의 지역화, 대중화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평화통일음악회, 평화통일영화제 등 대중적인 기제를 동원하여 회원 및 시민참여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평화통일 시민축제의 전형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부천지역의 사례는 통일운동내부의 노선갈등이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들어 남북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양되고, 금강산관광의 본격화와 개성공단 및 다양한 협력사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조직적으로는 평화통일운동진영과 함께 정당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화협이 건설되어 민관협력의 파트너쉽과 민간의 대북창구역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지역적으로는 “시민참여-열린행정”의 시정원칙을 표방하고 여러 측면에서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해온 민선 2,3기와 맞물려 평화통일의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렇듯이 부천지역의 평화통일행사는 남북관계의 해빙을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정세와 조건이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오랜 기간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거의 매뉴얼화된 8.15행사의 프로그램과 일정 및 오랫동안 훈련된 준비된 추진역량으로 인해 안정화되었다.

특히 이 시기부터는 NGO들의 연대기구인 부천시민연대회의가 준비주체가 되고 간사단체를 두고 더욱 폭넓은 부천시민통일문화제추진위원

회를 구성하여 통일기행 등의 단체별 주관행사, 메인 행사인 통일음악회와 같은 본부 주관행사를 선정하여, 통일박람회, 일본가와사키 제일동포 1,2세 초청 사진전, 판문점기행과 같은 대중적 행사는 물론, 김남식선생초청 대규모 통일강연회, 민족통일대토론회, MD반대 서명운동과 같은 정치적 실천등의 다양한 시민참여형의 평화통일축제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켜왔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의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 등이 모두 멈추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부천시민통일문화제추진위는 일반 시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숨결을 잇고자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부천시민통일문화제 추진위원회에 소속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들, ‘찾아가는 통일문화제, 청소년통일한마당, 통일비빔밥나누기, DMZ자전거평화기행, 찾아가는 평화통일학교, 통일노래한마당, 통일요리대회, 평화BOOK잔치, 종교인평화통일기도회, 평화통일아카데미, 북녘어린이돕기 기금마련행사, 815통일음악회, 다양한 평화기행 및 강연회 등’의 사업들에 연평균 5천여명의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평화와 통일의 감수성을 키우고 평화통일의 염원을 드높여 가고 있다.

▪30년 연혁

1991년 8월 15일	범민족대회 부천시역 참가단 발대식(석왕사) 및 범민족대회 참여(경희대)를 통해 부천시역 평화통일운동 시작
1992년 8월 15일	제2회 부천시민통일한마당(석왕사, 부천대) 제 3차 범민족대회 참가(서울대)
1993년 8월 15일	제3회 부천시민통일한마당(레포츠공원) 제 4차 범민족대회 참가(한양대)
1994년 8월 15일	제4회 ‘부천시민통일한마당(레포츠공원) 제 5차 범민족대회 참가(서울대)
1995년 8월 15일	제5회 ‘부천시민통일한마당(레포츠공원, 부천대) 제 6차 범민족대회 참가 분열(보라매공원과 서울대)
1996년 8월 15일	제6회 부천시민평화통일음악회(중앙공원) *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
1997년 8월 15일	제7회 부천시민평화통일음악회(중앙공원)

	<p>*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p> <p>*북한동포돕기 성금 모금(부천시장을 비롯한 민과 관, 진보와 보수, NGO와 기업 등 각계각층이 범시민적으로 참여하여 약 2억여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밀가루 630톤을 남포항을 통하여 북으로 전달 및 대한적십자사에 1억원 기탁)</p>
1998년 8월 15일	<p>제8회 ‘부천시민통일한마당</p> <p>*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p>
1999년 8월 15일	<p>제9회 ‘부천시민통일한마당</p> <p>*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p>
2000년 8월 15일	<p>제10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p> <p>*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p> <p>*부천시민통일문화제 추진위원회를 구성(6월 17일)하고, 행사명을 부천시민통일한마당에서 부천시민통일문화제로 변경</p> <p>*부천시 평화통일행사 경상예산 지원</p>
2001년 8월 15일	<p>제11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p> <p>*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p>
2002년 8월 15일	<p>제12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p> <p>*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p>
2003년 8월 15일	<p>제13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p> <p>*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p>
2004년 8월 15일	<p>제14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통일합시다!”</p> <p>*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p>
2005년 8월 15일	<p>제15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 “광복 60주년, 615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p> <p>*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p> <p>*개성공단 노동자 출퇴근 자전거 120대 지원</p>
2006년 8월 15일	<p>제16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p> <p>*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p> <p>*제1회 종교인평화통일기도회</p>
2007년 8월 15일	<p>제17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 “통일, 평화로운 소통”</p> <p>*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p>
2008년 8월 15일	<p>제18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 “나눔과 평화!”</p> <p>*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p> <p>*남북축구공동지원단 및 북녘동포돕기기금 청진애육원 지원</p> <p>*부천종교인평화회의 창립</p>
2009년 8월 15일	<p>제19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 “찾아가는 통일문화제!”</p> <p>*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p>
2010년 8월 15일	<p>제20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 "평화의 대로를 열어라"</p> <p>*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p>

	*제5회 종교인평화통일기도회 개최
2011년 8월 15일	제21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 “부천에서 부는 생명과 평화의 바람!” *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 *부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조례제정
2012년 8월 15일	제22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 “부천을 평화와 통일의 도시로!” *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 *부천시 평화통일기반조성지원사업 개시 *단체별 평화통일사업 시행
2013년 8월 15일	제23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 “부천,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자!” *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 *단체별 평화통일사업 시행
2014년 8월 15일	제24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 “작동산지키기와 함께하는 생명·평화·통일” *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 *단체별 평화통일사업 시행
2015년 8월 15일	제25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 “만나야 통일이다!” *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 *단체별 평화통일사업 시행
2016년 8월 15일	제26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 “부천, 개성과 함께 통일로!” *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 *단체별 평화통일사업 시행 *부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평화통일지원사업
2017년 8월 15일	제27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 “부천, 다시 통일의 문을 활짝!!” *815통일음악회 및 참가단체 평화통일부스 운영 *단체별 평화통일사업 시행
2018년 8월 14일	제28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 “우리, 다시, 만나, 평화통일로~!”
2019년 8월 14일	제29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 “다시 맞잡는 손, 함께 부르는 평화!” 4.27DMZ평화인간띠잇기(2019.4.27.)